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景致地理學)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송원섭*

From Representational Geography to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Paradigm Shifts of Landscape Studies in Anglophone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Wonseob Song*

요약 : 이 논문은 2010년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들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비재현지리학(非再現地理學,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영미권 경관연구의 패러다임이 경관지리학(景觀地理學)에서 '경치지리학(景致地理學)'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경치지리학'은 '비재현지리학'의 본질을 우리말의 맥락에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개념화(re-conceptualisation)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새롭게 고안된 개념이자 용어이다. 비재현지리학 이전의 경관연구들을 경관지리학의 범주로, 그리고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을 경치지리학의 범주로 각각 개념화함으로써,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들의 흐름을 명확하게 추적하고, 또한 이를 통해 한국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미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요어 : 경치지리학, 비재현지리학, 비재현이론, 정서(情緒), 몸, 몸적 감응(感應)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aradigm shifts of landscape studies in Anglophone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By analyzing the work of the Berkley School in the 1950s and 1960s, the advance of humanistic geography in the 1970s, the revival of cultural geography in the 1980s ("new cultural geography"),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paradigms of landscape studies in Anglophone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have been changed. By giving buoyancy to the concept of 'Affect'-a kind of 'spatio-bodily-magnetic relation'-as an essence of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I provide an easy way for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In addition to this, re-conceptualising Non-Representational Theory (NRT) based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as '*Kyung-Chi Jirihak*' in Korean lexicon context, it is suggested that what the directions of landscape studies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of Korea should be and how it can be set up in the paradigm shifts.

Key Words :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 non-representational theory, affect, body, bodily affection

*영국 퀸즈대학교 문화역사지리학 박사과정(PhD Candidate i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 School of Geography, Archaeology, and Palaeoecology, Queen's University at Belfast, United Kingdom), wsong01@qub.ac.uk

1. 서론

본 논문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20세기 중반의 버클리 학파(Berkeley School)의 경관연구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말의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를 거쳐 21세기 초 비재현지리학(非再現地理學,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경관연구에 이르기까지 영미지리학에서 경관연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둘째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문화역사지리학의 핵심개념인 ‘경관(景觀)’이 이제 왜 필연적으로 ‘경치(景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하여 재조명되고 또한 정의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함이다. 결론적으로, 현대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의 패러다임이 20세기의 경관지리학(景觀地理學)에서 21세기의 ‘경치지리학(景致地理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경치지리학’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비재현지리학’의 본질을 우리 말의 맥락에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개념화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필자에 의해 새롭게 고안된 개념이자 용어이다.¹⁾ ‘경치지리학’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자세한 함의는 본 논문 후반부를 통하여 자세히 논할 것이다.

사실,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은 이미 국내의 많은 문화역사지리학자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 이루어져 온 바 있다(e.g. 류제현, 2009; 박승규, 1995; 윤흥기, 2009; 진종현, 2013; 홍금수, 2009). 하지만, 현재까지의 이러한 국내의 연구들은 모두가 신문화지리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현재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비재현지리학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앞선 국내 연구들에 대한 추가적인 차원의 연구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버클리 학파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인본주의지리학

과 1980년대와 1990년대 신문화지리학에 이르는 경관연구들이 왜 ‘봄 혹은 응시-觀’로서의 경관(景觀)을 연구하는 경관지리학으로 개념화되는지, 그리고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을 왜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致’으로서의 경관, 즉 경치(景致)를 연구하는 경치지리학으로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영미권의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 패러다임이 현재 경관지리학으로부터 경치지리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핵심 논지들을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 장들의 마지막 부분에는 해당 장들의 핵심 논지들과 개념들을 김춘수의 시『꽃』의 시적 상황을 활용한 비유적 예시를 통해 정리/마무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는 독자들이 본 논문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장치가 되어줄 것이다.

2. ‘봄 혹은 응시-觀’로서의 경관(景觀)

1)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 (1950s-1960s)

경관연구에 있어서 경관을 외부의 물리적 사물 혹은 실체 그 자체로서 취급하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탐구를 추구했던 연구는 사실 19세기 독일의 문화역사지리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 알프레드 헤트너(Alfred Hettner) 그리고 오토 쉐뤼터(Otto Shlüter) 등의 독일 문화역사지리학자들은 ‘지역(地域, region)’이라는 개념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류하고 탐구하기 위하여 지질학, 경제학 등과의 밀접한 연계 연구를 통해 지역을 ‘물리적 실체와 형태’로 규정하고 그것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쉐뤼터는 경관(landscape)의 독일어 어원이기도 한 란트샤프트(landschaft)를 ‘물리적 요소들이 서로 연관되어 조화롭고 균질적으로 모여 있는 하나의 영역/지역’이라고 정의하기에 이른다(Crang, 2013; Wilson and Groth, 2003, 3-4).

경관지리학의 아버지라 여겨지는 칼 사우어(Carl Sauer)는 독일에서 지리학을 수학하는 동안 이와 같은 19세기 독일 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개념을 직접적으로 상속받아, 경관의 정의를 “하나의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 혹은 집단이 토양, 기후, 농업 등의 영향 아래에 만들어낸 지역/영역”이라고 규정하고(Wilson and Groth, 2003, 5), 그의 저작, *The Morphology of Landscape*(1963)에서 “문화경관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지역(natural area)이 문화에 의해 변형 혹은 변용된 결과물이다”(Sauer, 1963, 343)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지표과학(earth science)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지리학은 그러한 ‘물리적 실재로서의 경관(landscape as a material entity)’을 연구하는 학문이어야만 한다고 규정지었다(Mayhew, 2011).

칼 사우어의 경관개념을 바탕으로, 당대에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 경관연구를 수행했던 북미지역의 버클리 학파 문화지리학자들과 토착 경관(vernacular landscape)의 연구영역을 독자적으로 개척하여 버클리 문화지리학자들에게 영감을 부여했던 J.B. 잭슨(John Brinckerhoff Jackson), 그리고 영국의 문화지리학 혹은 역사지리학 분야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W.G. 호스킨스(William George Hoskins)와 그를 따르는 후학들은 크게 보아 모두가 ‘물리적 실재로서의 경관’을 근본 전제로 두고 경관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Wylie, 2007, 17-54). 따라서 물리적 실재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경관(특히, 토착 경관 혹은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물질적 요소들—올타리, 전통주거형태, 건물양식 등—이 주된 분석대상이자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그 자체였던 셈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주름잡았던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의 경관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경관’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적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하나의 실체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 ‘경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바라봄, 관찰, 그리고 응시의 ‘대상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김춘수의 시 『꽃』의 시적 상황과 연관 지어 비유적으로 생각해본다면, 1950년대와 1960년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경관’ 개념은 사물로서의 꽃, 그저 거기에 있는 물리

적 대상, 즉, 인간에 의해 꽃이라는 이름으로 호명(呼名)되기 이전의 하나의 손짓에 불과한 단순한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꽃이 있는 바로 거기 그 위치에 왜 선인장 혹은 나무 혹은 바위 따위의 물질적 요소가 아닌 하필 꽃이라는 물질적 요소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왜 그 꽃의 꽃잎의 개수는 하필이면 8개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왜 그 꽃은 굵은 형태의 줄기를 가진 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지리적 환경(토양, 기후 등)의 ‘직접적(direct/linear)’ 결과로 탄생한 인간의 ‘(그 꽃을 선택하고 그곳에 그 꽃을 심는) 문화’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2) 내재적/주관적 실재로서의 경관(1970s)

버클리 학파를 중심으로 한 1950년대와 1960년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객관적/과학적 경관연구, 즉 ‘경관이라는 것은 인간과 별개로 인간의 외부(external)에 물리적/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수행된 경관연구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1970년대에는 이푸 투안(Yi-Fu Tuan)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이 대두하게 된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경관을 지리적 환경과 인간의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 산물로서 바라보는 ‘경관에 대한 기계론적/결정론적 인식’을 전면 부정하면서,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을 마주보고 서 있는 주체적/주관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주목’한다(Ley and Samuels, 1978). 인본주의 지리학에 있어서 경관과 인간이라는 두 실재들 사이의 존재론적 우선순위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놓여있는 것이다(Wylie, 2007, 180).

‘현상학적 존재론(phenomenological existentialism)’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인본주의지리학에서의 이러한 경관연구는 철저히 행위, 지각, 동기 등의 인간중심적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인다(Cresswell, 2013). 다시 말해, 인간의 주체적 관점으로부터 외재적/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경관에 대한 경

험의 주관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는 경관이라는 것이 더 이상 외재적/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체적 의미의 창'을 통해서만 경관은 인간에게 내재적/주관적으로 실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논증해 보이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인본주의지리학의 창시자 이푸 투안의 대표적 저작, *Space and place*(1977)에서 제시된 아래의 '일리노이 농장 신혼부부의 장소경험'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우리 일상생활의 주무대가 되는 평범한 일상적 장소(home place)와 그 평범한 일상적 장소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에게 '실재'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캘리포니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일리노이 농장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계획했던 것만큼 캘리포니아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여행하는 내내 이곳 일리노이로 돌아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곳(캘리포니아)은 (저희 신혼부부에게 있어) 실재의 세계가 아니에요"

(Tuan 1977, 145; 괄호는 필자에 의한 편집)

위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연풍경, 건물, 도로, 광장, 공원 따위의 물질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경관은 일리노이의 신혼부부에게는 낯설음, 불안함, 불편함으로서의 경관인 것이다. 이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보자면, 일리노이의 신혼부부는 낯설음, 불안함, 불편함이라는 자신들'만'의 주체적 의미의 창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경관이 인식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경관을 그들에게 있어서 실재하지 않는 경관으로 의미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캘리포니아에 대해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다른 이들이 일리노이 신혼부부가 경험했던 캘리포니아의 똑같은 경관을 마주하고 경험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일리노이 신혼부부가 경험했던 경관은 더 이상 같은 경관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재적/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경관의 부정을 통한 내재적/주관적으로 실재하는 경관에 대한 탐구는 경

관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경관에 대한 철저한 "인간중심적(people-centred) 관점"(Cloke, 2014, xxii)은 인본주의지리학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분야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도록 만들었다.

위와 같은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는 김춘수의 시『꽃』그대로의 시적 상황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단지 하나의 몸짓으로서의 꽃이 시적 화자의 호명에 의해 의미화됨으로써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그 꽃이 비로소 시적 화자에게 '꽃으로서의 꽃'이 되듯이, 인본주의 맥락에서 바라본 외재적/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경관은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물질인 것이다. 인본주의지리학에 따르면, '하나의 몸짓으로서의' 외재적/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물질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경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주체적/주관적 의미의 창'을 통해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인간 앞에 놓여 있는 단순한 물질로서의 경관은 오직 인간의 간택에 의해서만 의미를 부여 받고 '진정한 의미의 경관'이라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곧 경관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실재임을 의미한다. 사물에 불과한 저기 피어 있는 '빨간색 물질을 꽃으로' 만들어주는 절대적 권위가 바로 시적 화자,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3) '보는 방식들(ways of seeing)'로서의 경관 (1980s-1990s)

1980년대 말에서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 영미권의 문화역사지리학에서는, 위와 같은 철저한 인간중심의 경관연구와는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인본주의지리학 이전의 버클리 학파의 경관연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듯 보이는 새로운 경관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으로서의 경관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관개념을 근본 전제로 경관연구를 수행하는 지리학을 일컬어 신문화지리학

(New Cultural Geography)이라 부른다.

신문화지리학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우산 아래에 모인 경관연구(자)들은 시기적으로 보아 대략적으로 1세대와 2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Adamek-Schyma, 2005; Wylie, 2007). 신문화지리학 1세대는 데니스 코스그로브(Denis Cosgrove)와 제임스 던컨(James Duncan), 그리고 피터 잭슨(Peter Jackson) 등의 문화역사지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며, 2세대는 미국의 돈 미첼(Don Mitchell)과 영국의 데이비드 매티스(David Matless) 등의 문화역사지리학자들이 주축이 된다(ibid). 신문화지리학을 1세대와 2세대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장에서는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 짓고,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경관연구 경향의 변화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가 신문화지리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진화되었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1) 1세대 신문화지리학

신문화지리학의 창시자로서 1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은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을 경관연구의 근본 전제로 두고 있었던 버클리 학파의 경관연구에 반기를 들었던 이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이 비판을 던졌던 대상은 버클리 학파의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개념이 아니라, 버클리 학파의 경관연구자들이 경관의 물질성(materiality) 속에 숨겨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들을 경시'하였다는 사실에 비판을 던졌던 것이다.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의 곳곳에서 확인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흔적들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린 문화역사지리학자는 데니스 코스그로브(Denis Cosgrove)였다. 코스그로브는 북미지역의 문화역사지리학자들 중 J.B. 잭슨(John Brinckerhoff Jackson)의 경관연구의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코스그로브는 J.B. 잭슨을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개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의 '숨겨진' 차원들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버클리 학파의 경관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문화역사지리학자로 평가하고 있다(Cosgrove, 1998, 27-38). 따라서,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 속에 숨겨져 있던 '질적인 차원'의 문을 J.B. 잭슨이 활짝 열어주었다면, 코스그로브는 그 문을 통해 경관의 질적 장의 중심으로 뛰어 들었던 셈이다.

코스그로브는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landscape as a way of seeing)'이라는 경관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는 "용어로서 그리고 관념(idea)으로서의 경관"(Cosgrove, 1985, 46)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지형도를 읽어내는 데 집중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진중현 2013; 윤흥기, 2009; 홍금수, 2009). 코스그로브는 경관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결과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직선)원근법(linear perspective)의 역사의 검토를 통하여"(Cosgrove, 1985; 진중현, 2013, 559 재인용), 경관이 용어로서 그리고 관념으로서 탄생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머금고 있었던(represented) 개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코스그로브는 경관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풍경화에 사용된 회화기법을 구성하는 기하학과 (직선)원근법은, 그 자체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반영된 결과로서의 '재현(representation)' 그 자체였음을 밝히고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이라는 개념을 거듭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코스그로브의 관심과 강조는, 그가 경관연구에 역사 유물론의 관점의 도입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급진주의 지리학(radical cultural geography)의 기치를 내걸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진중현, 2013, 560).

이와 같은 맥락으로, 던컨은 그의 대표저작, *The City as Text*(1990)에서 스리랑카 캔디 왕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경관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탐

구한다. 던킨은 캔디 왕국의 마지막 국왕 슈라이비크 라마가 아소카 이념 대신 샤크라 이념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사원 건축물과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공공건축물이 주가 되던 캔디 왕국의 경관을 사적인 공간인 왕국이 중심이 되는 경관으로 바꾸는 왕도 재건축사업(1910-1912)이 가지는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홍금수 2009, 67-68).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던킨은 경관에 숨겨져 있는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의 분석을 바탕으로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이 어떻게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활용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1세대 신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개념은 단순한 물질로서의 실재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함축하는 재현으로서의 실재로 그 의미가 진화하게 된다. 이러한 ‘물질에서 재현으로’라는 경관의 개념적 변화는 피터 잭슨(Peter Jackson), 질리언 로즈(Gillian Rose) 등과 같은 신문화지리학자 1세대들에 의해 공유되고 확장됨으로써, ‘경관의 숨겨진(질적) 차원을 풀어 헤치고 벗겨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관 연구의 패러다임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들의 중심에 안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1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은 철저하게 경관연구의 무게중심을 경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상징적 이데올로기’에 잡아둠으로써, 1950년대와 1960년대 버클리 학파의 경관연구와 1970년대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경관의 새로운 ‘질적 차원’을 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에 끌어왔던 것이다.

이들 신문화지리학 1세대들의 경관연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 전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경관의 이면에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믿음이고, 둘째는 그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생산 혹은 재생산해 내고자 하는 주체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앞서 제시한 코스그로브의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에 대한 연구의 경우를 예를 들면, “개인의 시선이 기하학과 (직선)원근법의 규칙을 통해 사회적 권력을 ‘그대로’ 표상하도록 유도, 조작, 통제하는 경관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한다”(진중현, 2013, 560)는 사실과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는 주체로서 ‘풍경화의 후원자이자 토지의 소유

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각 위의 두 근본 전제에 해당한다. 던킨의 텍스트로서의 경관에 대한 연구의 경우는, 스리랑카 캔디 왕국의 아소카 담론과 샤크라 담론의 두 축으로 구성되는 ‘통치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통치이데올로기의 주체가 되는 캔디 왕국의 ‘왕’이 각각 위의 두 근본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1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관의 이면에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존재와 그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생산 혹은 재생산해 내고자 하는 주체의 존재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인식론적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이르는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주요 목표는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에 재현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어떻게 경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즉, 이는 경관의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차원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신문화지리학 1세대들의 경관연구를 김춘수의 시『꽃』의 시적 상황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본다면, 꽃이라는 외재적/물리적/객관적 물질 뒤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차원과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구현해내고자 하는 주체세력의 존재를 분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은 꽃을 바라볼 때 결코 그 꽃이 그저 자연스럽게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난 ‘야생화(野生花)’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에 따르면, 그 꽃은 반드시 누군가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생육화(生育化)’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꽃의 씨가 뿌러지고 길러진 의도, 즉 그 꽃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며,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 특정 주체세력이 구현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현해내고자 한 바가 어떻게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신문화지리학 1세대들에게 그 꽃이란 늘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숨겨진 생육화(生育化)’로서의 꽃인 셈이다.

(2) 2세대 신문화지리학

1세대 신문화지리학에 의해 탄생한 위와 같은 경관 연구의 새로운 흐름은, 각각 미국과 영국의 2세대 신

문화지리학자들에 의해 폭과 깊이가 확장된다(Wylie, 2007, 95).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90년대 말은 미국과 영국의 경관연구의 경향이 갈라지는 주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 중 돈 미첼(Don Mitchell)의 경관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가 어떻게 보다 비판지리학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 중 데이비드 맏리스(David Matless)의 경관연구 사례를 통해서도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가 어떻게 보다 경관의 미시-담론적 차원의 탐구로 기울어지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이자 동시에 마르크스주의 문화정치학자이기도 한 미첼(1995)은 1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만 머무름으로 인해, 경관은 '약자로서 혹은 소외계층으로서의 노동 계층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급진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경관연구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즉, 1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특정 계급과 직결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렌즈를 통해 경관을 바라보고자 했다면, 미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로 대표되는 미첼은 '자본주의와 노동 계급'이라는 렌즈를 통해 경관의 '어두운 면'을 바라봄으로써 경관 속에 숨어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논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의 많은 급진지리학자들(e.g. Smith, 1990; Wilson, 1992; Zukin, 1991; Wylie, 2007, 100 재인용)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첼의 비판적 관점의 경관분석은, 1세대 문화지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비되어지는(be consumed)' 대상으로서의 경관이 아니라 노동의 결과로 인해 '생산되어지는 것(be being produced)'으로서의 경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Wylie, 2007, 100-102).

미첼의 이와 같은 경관연구들 중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 딸기 농장의 경관에 대한 분석이다(Mitchell, 2003b). 그는 캘리포니아 딸기의 크기와 맛 등의 상품성의 발전과 그로 인해 증가하는 농장

주의 이윤을 바탕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져만 가는 캘리포니아 딸기 농장의 경관의 어두운 면을 들추어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캘리포니아 딸기 농장의 그 풍요로운 경관은 이주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형편없는 처우, 노동자들과 농장주 사이의 증가하는 경제적/정치적 불균형,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을 노동자들과 농장주 모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들이 혼합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ibid).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의 풍요로운 딸기 농장 경관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약자로서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적 생산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즉, 미첼(Mitchell, 2003a)은 궁극적으로 문화역사지리학에서 경관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1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경관의 이념적 차원에 대한 연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경관의 아래로 내려가 그 경관을 생산해내고 또 그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며 재생산되는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경관에서의 '정의(justice)'를 논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이 특정 계급/계층(노동자, 여성 등)들에 초점을 맞춘 정의(justice)와 불의(injustice)에 대한 경관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같은 시기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은 특정 계급/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특정 계급/계층을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경관의 '미시 권력(discursive power)'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e.g. Blunt and McEwan, 2002; Driver, 2001; Phillips, 1997, etc.)은 경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걷기, 운전하기, 등산 등과 같은 '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도하고 움직이고 통제하는 미시 권력으로서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을 배회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의 문화역사지리학자 맏리스의 대표저작, *Landscape and Englishness*(1998)는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 경관연구의 성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연구라 할 수 있다. 맏리스의 핵심논점은 경관이 어떻게 그 경관에 존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관에 알맞게 혹은 올바르게 존재하도록 요구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의 연구 내용 일부를 예를 들어 보자면, 20세기 전반의 영국에서 고요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알맞은 혹은 올바른 태도는 헐레벌떡 뛰거나 시끄럽게 소리지르는 행동보다는 바람과 햇살을 그대로 느끼며 걷는 행동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매티스는 이와 같은 경관의 담론적 규범(discursive norms)이 20세기 전반 영국이 국가적 차원으로 행한 자연보전정책과 국민건강증진캠페인이 서로 맞물려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서, 근대적으로 올바른 몸은 “균형 있고(balanced), 가지런하며(composed), 조화로운(harmonious)”(Matless, 1998, 90) 몸매를 가진 몸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생성된 그러한 ‘올바른(right) 몸 담론’이 어떻게 당시 영국 사회의 ‘시골 지역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혹은 여가활동으로서의 걷기(walking/hiking)’를 부흥시키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매티스는 “경관(landscape), 국가(state) 혹은 사회(society), 그리고 자아(self)라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한 주목”을 통하여(Wylie, 2006, 306), ‘미시 권력으로서의 경관(landscape as discursive power)’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구한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말 미국과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는 각각 비슷하면서도 경관의 다른 차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미 앞서 미첼의 경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듯이, 미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는 경관 속에 가리워진 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 속에서 그 불균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 투여되는 사회의 소외계층들(노동자, 여성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파고드는 권력으로서의 ‘미시 담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김춘수의 시 『꽃』의 시적 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면, 우선 미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는 꽃을 심기 위해 누가 그 자리에 손에 흙을 묻히며 땅을 팠는지,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는 그 꽃만큼이나 과연 땅을 판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꽃의 주인과 꽃을 심은 노동자

들 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균형이 그 꽃의 아름다움 뒤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는 꽃이 가지고 있는 미시 권력(discursive power), 즉, 담론적 성격에 주목을 한다. 즉, 꽃이라는 것은 단지 외재적/물리적/객관적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은 ‘꽃의 규범적 담론’을 통해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기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저 꽃 옆에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서서 사진을 찍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꽃을 바라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은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꽃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진 ‘거름망’에 주목한다.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꽃은 그 꽃과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거름망’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성적인 실재’로서 걸러져 인식된다. 그에 더하여, 거름망을 통해 여과된 ‘여성적 실재로서의 꽃’은 그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적 실재로서의 꽃에 알맞은 행동을 하도록 통제한다. 그 거름망은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꽃이 남성적인 실재일 수도 있는 가능성(꽃의 남성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권력(power)’으로 존재한다.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거름망이 바로 경관에 대한 규범적 담론으로서의 ‘경관의 미시 권력’인 셈이다.

3.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 ‘致’으로서의 경치(景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버클리 학파, 1970년대의 인본주의지리학,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의 1세대 신문화지리학, 그리고 1990년말 1세대 신문화지리학으로부터 진화된 2세대 신문화지리학에 이르는 경관연구들을 관통하

는 한 가지 공통점은, 경관이라는 것이 인간의 외부(external)에 인간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 즉 경관의 객체로서의 존재론적 지위와 인간의 주체로서의 존재론적 지위의 인정을 근본 가정으로 삼고, 경관의 다양한 차원들을 탐구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1~2세대 신문화지리학자의 경우 대부분은 그와 같은 주체와 객체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재현으로서의 경관이 내포한 '상징적 의미'를 파헤치는 데 골몰했을 뿐 '실천'이나 '수행' 같은 비재현적 존재론에 대한 측면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진종현(2013, 569)에 의하여 정확히 지적된 바 있듯이, 그러한 존재론적 근본 가정은 2000년대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전반에 빠르게 확산, 공유되고 있는 '비재현(非再現, non-representation)'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비재현지리학(non-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연구들에 의해 전복되었다.

2000년대 비재현지리학 이전의 경관연구들은 모두가 경관과 인간 각각의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의 외부에 경관이 분명히 객체적인 존재로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도 분명히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렇기에, 버클리 학파는 외재적/물리적/객관적 실재로서의 경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인본주의지리학은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신문화지리학은 외재적/물리적/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경관에 재현된 이데올로기와 담론들 그리고 그것의 인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비재현지리학 이전의 경관연구들은 분명히 '관(觀)'에 방점이 찍힌 경관지리학의 범주로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객체와 주체가 명확하게 분리된 존재이기에 주체가 객체를 바라본다는 개념, '관(觀)'을 근본 전제로 하는 경관지리학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재현'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비재현지리학 경관연구들에서는 객체로서의 경관과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존재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재현지리학에 따르면, 눈 앞에 펼쳐진 물

질들의 집합으로서의 '경(景)'은 오직 인간과 외재적 사물들이 서로에게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에 대한 지리적 사유체계, 즉, 경관에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경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비재현지리학 경관연구의 근본 전제를 바탕으로, 비재현지리학이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이라는 의미로서의 '치(致)'에 방점이 찍힌 경치지리학의 용어로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비재현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경(景)에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으로서 이해되는 경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자. 1950년대와 1960년대 버클리 학파의 중심에 칼 사우어가 있고, 1970년대 인본지리학의 중심에 이푸 투안,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말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신문화지리학의 중심에 데니스 코스그로브가 있다면, 2000년대 비재현지리학의 중심에는 나이젤 스리프트(Nigel Thrift)가 있다. 비재현 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 NRT)의 창시자인 영국의 문화역사지리학자 스리프트는 그의 저서,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2008)를 통하여 기존의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들, 특히 신문화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들이 완전히 '재현(representation)' 중심의 연구였음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문화역사지리학의 연구들이 '비재현(non-representation)'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스리프트의 비재현이론(NRT)은 경관에 새겨지고 숨겨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 혹은 담론들 그리고 경관에 숨겨진 사회의 소외계층들(노동자, 여성 등)의 삶 등에 대한 경관연구들은 경관과 인간을 분리되어 있는 거시적인 범주로 인식함으로써 양자간의 '미시적 관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도출해 내는데 실패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Thrift, 1996; 2005; 2006; 2009). 이는 경관과 인간을 각각 분리되어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존재론적 사유로는 경관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없으며, 경관과 인간은 단지 양자간의 미시적 관계로서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재현지리학 경관연구의 핵심은 경관과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존재론에 대한 철거를 통해, 존재론적 절대적 최우선 순위를 경관과 인간의 '관계'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Anderson and Harrison, 2010; Merriman, 2012).

우선,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에서 말하는 경관과 인간의 '미시적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강조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 사례들 중 하나인 던컨의 스리랑카 캔디 왕국의 경관연구 사례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캔디 왕국의 경관은 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의 재현(representation)이다. 그리고 왕국의 '모든' 시민들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재현, 즉 경관에 새겨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영향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은, 과연 캔디왕국의 '모든' 시민들이 정말로 왕조 이데올로기의 재현으로서의 경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 및 증명될 바 없다는 관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현으로서의 경관을 연구하는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은 환경(경관 혹은 공간)과 인간의 이념적이고 담론적인 차원의 거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시서사(mammoth statements)'들로서의 연구일 뿐, 경관과 인간의 '미시적 관계(minimal relation)'에 대한 논의는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의 초점이 재현적 맥락의 몰두를 바탕으로 경관과 인간 사이의 거시적 관계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지리학(dead geographies)"(Thrift and Dewsbury, 2000)이며,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경관에 대한 연구를 살아 움직이는 지리학(vitalised geographies)으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경관과 인간의 미시적 관계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리프트는 이러한 죽은 지리학들을 다시금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관연구들의 무게중심을 "미시적 인본주의(minimal humanism)"(Thrift, 2008, 13)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념적, 담론적, 혹은 거시적 권력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확고한 믿음을 거둬들이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경관과 인간의 '미시적 관계(minimal relation)'로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들의 시선을 돌려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스리프트는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 인간과 환경(경관 혹은 공간)의 '미시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영국의 2세대 신문화지리학자들의 미시 권력으로서의 담론(discourse)적 차원에 대한 관심, ANT(Actor-Network Theory)에서 강조되는 관계성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과 질 들뢰즈(Gille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의 철학 등을 바탕으로 비재현이론(NRT)을 위한 지리-철학적 사유의 도구들을 창안해내고 있다(Agnew, 2011; Bosco, 2006; 진종현, 2013). 경관과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존재론의 전복을 통한 인간과 환경(경관 혹은 공간)의 미시적 관계(minimal relation)의 올바른 이해를 달성시키기 위해,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은 '정서(情緒, affect)'라는 지리-철학적 사유의 도구를 통해 경관에 대한 새로운 지리-철학적 사유를 시도한다(Lorimer, 2008). 파일(Pile, 2010, 8)은 비재현지리학 경관연구들의 근간(foundation)이라 볼 수 있는 '정서'라는 개념적 도구를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볼드체는 필자에 의한 강조).

- 1 정서는 **몸(body)의 감각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산물인데, 그러한 몸의 감각적 활동은 타자의 몸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각적 활동이기도 하다.
- 2 그렇다고 해서, 정서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 혹은 개인과 타자와의 관계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초(超, trans-)개인적인 것**으로서 타자들의 몸들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서는 몸들 속에서 또한 동시에 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다.
- 3 정서는 **비/선(non-or pre-)인지적, 비/선반영적, 비/선의식적, 그리고 비/선인간적인 것**이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 3a 정서라는 것은 감정적 혹은 감성적으로 느껴지

- 기 이전 단계에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다.
- 3b 정서는 위치상으로(spatially) 보자면 인지와 의식의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며, 반응과 인간을 넘어선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4 정서는 인지, 반영, 의식 그리고 인간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 5 정서는 몸들 사이를 유영(游泳, **flowing**)하면서 때로는 몸들과 연결되고 때로는 몸들을 서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아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 6 정서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 7 정서는 늘 언제나 '개방성(openness)'으로 존재하는데, 그 개방성은 몸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윤리적 관계들 속으로 휘감아 들어가도록 만든다.
- 8 정서의 재현들은 정서 그대로를 온전히 재현해내는데 실패한다.
- 9 결론적으로, 정서들은 다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위의 정리로부터 확인되듯이, '정서'라는 것은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정서라는 것은 인간의 몸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몸들 사이를 유영(游泳, **flowing**)하면서 몸들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재현지리학의 이러한 '몸 중심적 개념'으로서의 정서를 공간과 몸 사이에 흐르는 자기력이라는 의미의 '공간-몸적인 자기적 관계(**spatio-bodily-magnetic relation**)'와 같다고 보는데, 자기력(**magnetic power**)이라는 실체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자기장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들과 함께 자기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자기력을 일으키는 그 특정 물질들의 사이에서 유영하며, 또 동시에 그 물질들의 자기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존재라는 점에서, 필자는 공간 그리고 몸과 맞물려 있는 '정서'라는 개념을 '공간-몸적인 자기적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비재현지리학 경관연구들의 핵심 개념인 정서에 대한 아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간을 자석의 N극으로, 그리고, 그 공간에 위치한 인간을 자석의 S극으로 각각 치환시켜 생각해보도록 하자. 자석의 N극(=공간)과 자석의 S극(=인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석의 N극(=공간)만을 탐구하는 것은 절대로 자석의 N극(=공간)에 대한 올바른 탐구로 이어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하다. 지금 자석의 N극(=공간)은 자석의 S극(=인간)과 마주보고 있는 '상태 그 자체로 인하여', 이미 그 스스로가 S극(=인간)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N극(=공간) 자신과 S극(=인간) 사이의 '자기적 관계(=정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N극(=공간) 자신과 S극(=인간)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그 '자기적 관계(=정서)' 속으로 위치 지어 지고 때문이다. 자석의 N극은 자석의 S극과 마주보고 있는 한 결코 별개의 물질로 이해될 수 없으며, 오직 자기적 '관계(=정서)를 통해서만' 혹은 자기적 '관계(=정서)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만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기적 관계(=정서)의 절대적인 존재론적 우위성이다. 세 가지의 실재들; N극(=공간), S극(=인간), 그리고 N극(=공간)과 S극(=인간)이 만들어내는 자기적 관계(=정서)라는 실재들을 놓고 존재론적 우선순위를 따져 보았을 때, 존재론적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앞서는 실재는 N극(=공간)도 S극(=인간)도 아닌, 바로 N극(=공간)과 S극(=인간)이 만들어내는 '자기적 관계(=정서)'라는 것이다(e.g. Dewsbury and Bissell, 2015; Lapworth, 2015; McCormack, 2012, etc.). N극(=공간)과 S극(=인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N극(=공간)과 S극(=인간)은 오직 '자기적 관계(=정서)를 통해서만' 존재되고 이해될 수 있을 뿐, N극(=공간)과 S극(=인간)을 각각 별개의 실재로 이해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둘째는, 몸(body)의 중요성,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몸적인 감응(感應)을 바탕으로 한 정서(**bodily affection**)'의 중요성이다(e.g. Ash and Simpson, 2014; McCormack, 2013; Wylie, 2005; 2012, etc.). 서로 다른 성질의 자기력들, 즉 객관적/외재적 실재로서의 N극(=공간)과 주관적/내재적 실재로서의 S극(=인간)이 서로 만나서 자기적 관계(=정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N극(=공간)의 물질성에 대한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가 일어나는 인간의 몸(body)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의 몸(body)이 N극(=공간)과 S극(=인간)의 자기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conduits)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경관에 대한 지리-철학적 사유 체계에서 몸(body)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정서'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의 몸이 인간의 몸과 공간 사이의 자기적 관계(=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과 공간 사이의 자기적 관계(=정서)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몸은 단지 육체(肉體, fleshly body)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몸(body) 그 자체가 아닌, 이미 용어 자체에 관계적 맥락의 의미를 품고 있는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가 N극(=공간)과 S극(=인간) 사이의 자기적 관계(=정서)를 이해하는 열쇠인 것이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의 이와 같은 지리-철학적 사유체계를 통해,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이 어떻게 신문화지리학 그리고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들과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노선을 택하고 있는지가 대략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이미 앞서 수 차례 언급되었다시피 신문화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의 근본 전제는 '재현으로서의 경관'이다. 경관은 이데올로기의 재현이자 담론의 재현이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불균등의 재현이다. 이것은 분명히 경관에 대한 "거시적 서사(mammoth statements)"(Thrift, 2008, vii)이다. 하지만,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에게 있어 경관은 개별적 인간의 몸(body)과 경관 사이의 자기적 관계라는 정서가 생기는 과정(a process) 그 자체를 통해 이해되는 대상이다. 즉, 경관은 인간 사이의 정서의 흐름(flow)이자 리듬(rhythm)이기도 하며 동시에 분위기(atmosphere) 그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은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 경관과 인간 사이에 존재 하는 '관계'에 현미경을 가져다 댄으로써, 경관 속에서 시시각각 늘 변화하는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에 대한 관찰, 즉 사람들의 몸과

경관 혹은 공간 사이의 '변화무쌍한' 관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 경관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경관에 대한 미시적 서사(minimal statements)이다.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비재현지리학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비재현이론(NRT)의 탄생 자체가 경관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미시적 관계의 탐구, 즉 "미시적 인본주의(minimal humanism)"(Thrift, 2008, 13)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이 경관에 대해 '인간의 몸 중심의 미시적 서사'를 탐구한다고 해서 이푸 투안을 중심으로 1970년대를 풍미했던 인본주의지리학과 같은 궤도에 있는 경관연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잘못된 이해이다.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2000년대 현재의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과 1970년대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은 분명하게 다른 궤도상에 있는 연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첫째는,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들에서 경관과 인간의 '관계'는 없다. 오직, 경관을 바라보는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인본주의지리학에서의 경관연구들이 있어서, 경관과 인간이라는 두 실재들 사이의 존재론적 우선순위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놓여 있으며 그것은 '육체'로서의 몸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Macpherson, 2010). 인간이 없으면 경관도, 그리고 인간과 경관의 관계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주체성이 경관을 이해하기 위한 '절대적인' 열쇠인 셈이다. 이에 반해,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경관을 바라보는 절대적 권위의 '주체적 의미의 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존재론적 최우선 순위는 오로지 경관과 인간의 '사이' 즉, '관계'에 있다.

다음으로,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들에서는 개개의 주체들로서의 인간들이 하나의 거대한 범주인 인간으로 일반화된다. 즉, 인간들이라는 복수(複數, plural)적 주체들을 하나의 범주로서의 인간으로 단수(單數, singular)화시켜 버리는 심각한 우를 범한 셈이다. 이에 반해,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은 개개의 주체들로서의 인간들을 감히 인간이라는 범주로서 단순화시키는 절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다.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은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에 기반한 인간과 경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개개의 주체들 각각을 단수로 인정하며 개개의 주체들과 경관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관과 인간에 대한 탐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지 인간의 몸(body)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과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을 같은 궤도선상에 놓인 연구들로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하리만치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를 기반으로 하면서 또 동시에 경관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경관연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영미권에서 쏟아지는 최근 비재현지리학 경관연구들 중 영국의 젊은 문화지리학자 한나 맥펠슨(Hannah Macpherson)의 연구가 비재현지리학 경관연구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연구사례들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맥펠슨은 그녀의 연구, *The intercorporeal emergence of landscape: negotiating sight, blindness, and ideas of landscape in the British countryside*(2009)에

서 시각장애인들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영국의 레이크 디스트릭트(Lake District)와 피크 디스트릭트(Peak District)지역을 하이킹하면서 그 지역의 경관들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경관을 인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맥펠슨은 해당 사례 연구를 통하여, 경관을 느끼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감각인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호수와 다양한 높이의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경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환경(경관 혹은 공간)과 사람 사이 그리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부분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시각장애인을 예로 들어보자. 그 시각 장애인은 햇빛이 내리쬐는 화창한 날씨에는 사물들의 형체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낀 어두운 날씨를 선호한다. 더군다나 그는 눈 앞에 펼쳐진 경관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단안용 확대경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단안용 확대경으로 인식되는 경관의 범위는 분명히 제한적인 경관일 뿐이다.



그림 1. 시각장애인들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Peak District를 하이킹하는 모습 (Mapherson, 2009, 1043)

맥펠슨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환경(경관 혹은 공간)과 자신 사이 그리고 동시에 자신과 도우미 사이의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를 통해 시각적 차원을 넘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차원들을 통한 경관인식이 가능한지에 대해 주목한다. 시각장애인들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도우미의 부드러우면서도 믿음직한 팔짱, 눈 앞에 펼쳐진 경관에 대해 설명해주는 도우미의 말의 어조와 분위기, 그리고 그 어조와 분위기를 통해 전달되는 경관에 대한 감성과 느낌, 시각장애인들의 스스로가 직접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와 발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지형의 느낌, 피부의 온도를 통해 느껴지는 날씨, 단안용 확대경을 통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제한적 경관 등의 무수한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경관의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를 기반으로 한 경관에 대한 인식은 비단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맥펠슨 연구자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맥펠슨은 시각장애인을 한 쪽 팔에 낀 채로 시각장애인의 하이킹을 도와주는 내내 자신의 몸의 움직임의 초점을 두 가지 요소에 맞추었다. 첫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자신과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통과하기에 무리가 없는 길인지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의 팔에 의지된 시각장애인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그녀가 눈 앞에 펼쳐진 경관, 자신의 팔을 통해 느껴지는 시각장애인의 자신에 대한 의지, 자신과 시각장애인의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생겨나는 친밀감 등과 같은 무수한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두 사람을 위한 경관"(Macpherson, 2009, 1048)을 응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늘 두 사람을 위한 경관을 인식하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몸-감각적 습관(bodily-sensuous habit)'은 바로 경관에 대한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의 흔적이자 증거인 셈이다. 즉, 이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자기적 성질(magnetic quality)을 가지고 있는 위의 각각의 요소들의 배열로 인하여, 각각의 요소들과 연결

되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요소들 사이를 흐르고 동시에 각각의 요소들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자기적 관계(magnetic inter-relations)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공간-몸적인 자기적 관계(spatio-bodily-magnetic relation)'로서의 '정서'가 생성되고, 그 정서는 '몸적 감응'을 통해서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가 없는 안내인 모두로 하여금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서 또 다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존재론적인 절대적 최우선 순위는 각 요소들의 개별적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들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경관은 객체적 존재로서의 경관으로부터 인식되는 것도 아니고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으로부터 인식되는 것도 아니다. 경관은 오직 경관과 경관을 마주한 개별적 주체로서의 자신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고 존재할 뿐이다.

경관은 경관이 인간에게 다가가 이르는 과정과 또 동시에 인간이 경관으로 다가가 이르는 과정이 조우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만 인식되고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는 경관과 인간이 각각 분리되고 독립된 실체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각각이 서로에게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致'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에 대한 이해가 곧 경관에 대한 이해임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2000년대 현재 영미권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와 같은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을, 경관과 인간이 서로 '다가가 이르는 과정(a process)-致'에 방점을 찍는 의미에서의 **정치지리학**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지해야 할 점은, 정치지리학으로서 비재현지리학이 가지는 함의는 경관연구에 있어서 '의미에서 실천으로', '텍스트에서 수행으로'의 전환을 그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진중현, 2013). 즉,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 패러다임은 일종의 'Post-Text'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장소와 공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문화지리학에서 '몸(body)'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리

프트(Thrift)가 몸과 정서를 강조한 것은 '재현으로서의 경관해석'에 쏟아진 문화지리적 관심들이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한 간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리프트의 논저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들이 '수행(performance)과 수행성(performativity)'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Thrift, 2004; Johnson *et al.*, 2013; 진종현 2013). 즉, 기존의 재현에 초점을 둔 신문화지리학의 해석인 'culture as meaning'의 입장에 선다면 비재현 문화지리학은 'culture as doing'의 입장으로 '수행'과 '실천'을 경관연구 논의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리프트의 비재현 문화지리, 수행의 문화지리는 신문화지리학의 상징성(symbolism)과 버클리 문화지리학의 물질성(materiality)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치지리학(景致地理學)으로서의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를 김춘수의 시『꽃』의 시적 상황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 비재현지리학의 경관연구자들의 시선은 꽃을 보기 이전에 그리고 시적 화자를 보기 이전에 꽃과 꽃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 '사이의 빈 공간'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이의 빈 공간 속에서 '꽃-물리적인 자기적 관계', 즉 정서가 유영하고 있으며, 그 정서를 통해서만 꽃과 시적 화자(인간) 모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체적 존재로서의 꽃 그리고 주체적 존재로서의 시적 화자(인간)라는 이분법적 이해란 존재할 수 없다. 오직, 꽃과 꽃을 바라 보는 시적 화자 사이의 '관계적인 존재(affective existentialism)'만이 있을 뿐이다. 즉, 꽃이 피어 있는 곳이 산 속인지 황량한 벌판 위인지 바닷가인지, 꽃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시적 화자가 그 꽃을 바라 보는 상황에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있는지, 또 시적 화자 곁에서 누군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꽃에 얽힌 아름다운 혹은 슬픈 사연을 말해주고 있는지, 혹은 그 꽃과 관련된 시적 화자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 꽃을 향한 시적 화자의 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순간의 날씨(바람, 구름, 안개 등)는 또한 어떠했는지 등등의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수행/실천적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확인 되는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한 정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꽃(환경)과 시적 화자(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꽃(환경)과 시적 화자(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오직 꽃(환경)과 시적 화자(인간) '사이의 빈 공간'에 현미경을 가져다 댄으로써, 꽃(환경)과 시적 화자(인간)가 무수히 많은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다가가 이르는지(a process)-致'에 대한 이해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4. 맺음말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들의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으로'의 전환은 분명한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이다. 하지만, 필자는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의 이와 같은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은 분명 자연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며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과학철학자 N.R. 헨슨(Norwood Russell Hanson)은 동일한 그림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응시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을 과학적 관찰에 적용시키며, 지구 중심설을 주장했던 브라헤와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던 케플러의 가상대화를 그 예시로 든다(Hanson, 1958, 5-6). 이른 아침에 지평선에 떠오르는 여명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보며 브라헤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케플러는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쿤은 그의 저작,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1962)에서 과학적 관찰도 결국은 이론을 등에 업은 편향된 관찰일 수 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관찰의 이론 적재성(theory ladenness of observation)' 논제를 기반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내고 또한 이 개념을 통해 '과학혁명의 구조'를 논증해 보였다. 여기서 '패러다임'은 과학자 사회구성

원들의 전반적인 합의를 통해 공유되는 신념들(group commitments)을 의미한다(Kuhn, 1962, 175-210). 즉, 패러다임은 과학적 관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종의 관찰 수행 지침(an instruction for scientific observation)인 동시에 그 관찰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theory)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큰 은 이러한 패러다임이 안정화된 시기, 즉 모든 과학자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됨을 통해 패러다임이 당위성을 완전하게 획득하게 되는 시기를 일컬어 '정상과학(normal science)'의 시기라고 부른다. 그는 정상과학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특정한 현상을 더 이상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을 때,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것을 설명해낼 때,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통한 정상과학의 전복과 새로운 정상과학의 도래, 즉,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위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확인되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전환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연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대체(replacement)'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보완(supplementation)'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연과학에서는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에서는 패러다임이 위기를 맞으면 '이전 패러다임의 조력자'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주장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버클리 학파의 경관연구, 1970년대 인본주의지리학의 경관연구, 1980년대 1990년대 전반의 신문화지리학 경관연구 각각의 패러다임들 모두를 결코 폐기의 대상으로서의 패러다임, 즉 구시대적 유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경관에 대한 지식의 확장(an extension of knowledge)이라는 것은 오직 경관연구 패러다임들의 '누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김춘수 꽃의 시적 상황을 통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사를 생각해보자. 외재

적/물리적/객관적 꽃에서 출발하여 꽃을 바라보는 주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꽃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이념 및 담론이라는 거름망, 그리고 꽃에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노동자, 여성 등의 소외계층)를 거쳐, 이제는 객체로서의 꽃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과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부정을 통해 양자가 서로에게 다가가 이르는 과정과 그 '관계적 존재론(affective existentialism)'에 대한 탐구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분명히 경관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퍼즐조각들의 맞춤으로 보아야 한다. 경관이라는 거대한 퍼즐 그림판 위에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버클리 학파라는 퍼즐 조각이 처음으로 놓여졌다면, 그에 이어 1970년대에는 인본주의지리학이라는 퍼즐 조각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신문화지리학이라는 퍼즐 조각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비재현지리학이라는 퍼즐 조각이 놓여짐으로써, 경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중인 것이다. 큰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들 중 단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퍼즐 조각의 집합체로서의 큰 그림은 결코 완성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가는 각각의 퍼즐 조각들 사이에 우열(偶劣, superiority)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바로 여기서 한국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미래를 찾고자 한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현재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들은 경관연구 패러다임들의 우열을 가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이 전쟁은 버클리 학파의 탄생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전쟁이다. 그런데 그것은 전쟁이어서도 안되고 전쟁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 시작 순간부터 경관이라는 같은 그림을 완성해가는 퍼즐조각의 맞춤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 한국문화역사지리학의 경관연구들은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들이 절대로 대체(replacement)적 존재로서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될 수 없고 그것들은 동일한 그림을 향한 상호조력자들로서의 퍼즐조각들을 증명해 보이고 동시에 그와 같은 증명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관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재현지리학이 주도

권을 잡고 있는 현재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자들의 전쟁터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영미권 경관연구자들이 바라보지 못한 새로운 지리-철학적 사유(geo-philosophy)의 창안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론(methodology)의 개발, 그리고 그에 알맞은 실증적(empirical) 사례연구 수행 등 넘어야 할 산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실제로 현재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의 치열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e.g. Crang, 2015; Hodgetts and Lorimer, 2015; Spinney, 2015; Vannini, 2015, etc.). 하지만, 기존의 모든 경관연구 패러다임들을 폐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그림 속에 놓인 퍼즐 조각들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각의 패러다임들과 그 흐름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그를 통해서 경관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이것 또한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능성 속에 한국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의 미래를 묻는다면 그 물음의 답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주

1) 경관지리학이라는 용어는 'landscape geography'라는 정확한 영어-지역 번역어가 존재하는 반면에, 경치지리학이라는 용어는 뚜렷한 영어-지역 번역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경치지리학이라는 용어가 비재현지리학의 본질을 우리말의 맥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개념과 용어로서 조어(造語)되었다는 점에서, 경치지리학의 영어 번역어는 'non-representational geography'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경관지리학의 영어-지역 번역어인 'Landscape geography'와 같은 경치지리학에 대응되는 영어-지역 번역어를 제시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권선정, 2003, "경관텍스트로서의 지도읽기: 금산의 옛 지도를 포함하여," 문화역사지리, 15(2), 61-82.

권선정, 2009, "텍스트로서의 풍수경관읽기," 문화역사지리, 21(1), 117-134.

류계현, 2009, "한국의 문화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문화역사지리, 21(1), 105-116.

박승규, 1995, "문화지리학의 최근 동향: '신'문화지리학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7, 131-145.

양보경, 2009, "상징경관으로서의 고지도 연구," 문화역사지리, 21(1), 95-104.

윤홍기, 2009, "영어권에서 문화지리학의 발전과 연구동향," 문화역사지리, 21(1), 13-30.

이무용, 1999, "한국도시경관의 근대성: 경관 연구의 지평확대를 위하여," 문화역사지리, 11, 95-117.

이영민, 1997, "문화·역사지리학 연구의 최근동향과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5(1), 27-39.

이정만, 1998, "도시문화지리학에 있어서 '문화'와 '환경'의 개념, 대한지리학회지, 33, 677-684.

진종한, 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215-252.

진종한, 2009, "문화적 구성물로서의 촌락경관 비교연구: 반촌과 민촌적 배경의 촌락 간 비교," 문화역사지리, 21(3), 81-103.

진종현, 2006, "코스그로브의 경관 이론," 현대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진종현, 2009, "경관연구의 환경론적 함의," 문화역사지리, 21(1), 149-160.

진종현,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557-574.

홍금수, 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Adamek-Schyma, B., 2005, Cultural geography, in *Encyclopedia of World Geography*, Facts On File, Inc., New York, 223-226.

Agnew, J.A., 2011, Space and place. in *The SAGE handbook of Geographical Knowledge*, SAGE, London, 316-330.

Anderson, B. and Harrison, P., 2010, *Taking-place: non-representational theories and geography*, Ashgate Farnham.

Ash, J. and Simpson, P., 2014, *Geography and post-phenomenology*, Ashgate Farnham.

- nomenolog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0309132514544806.
- Blunt, A. and McEwan, C., 2002, *Postcolonial geographies*, Continuum, London.
- Bosco, F.J., 2006, Actor-network theory, networks, and relational approaches in human geography, in *Approaches to human geography*, SAGE, London, 136-146.
- Cloke, P.J., 2014, *Introducing human geographies* (3rd ed), Routledge, London.
- Cosgrove, D., 1985, 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the Landscape Ide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10(1), 45-62.
- Cosgrove, D.E., 1998,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London.
- Crang, M., 2013, *Cultural Geography*, Routledge, London.
- Crang, M., 2015, The promises and perils of a digital geohumanities, *Cultural Geographies*, 22(2), 351-360.
- Cresswell, T., 2013, *Geographic thought: a critical introduction*, Critical introductions to geography, Wiley-Blackwell, Chichester.
- Dewsbury, J.D. and Bissell, D., 2015, Habit geographies: the perilous zones in the life of the individual, *Cultural Geographies*, 22(1), 21-28.
- Driver, F., 2001, *Geography militant: cultures of exploration and empire*, Blackwell, Oxford.
- Duncan, J.S., 1990, *The city as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 kingdom*, Cambridge human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anson, N.R., 1958, *Patterns of discovery: an inquiry into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odgetts, T. and Lorimer, J., 2015, Methodologies for animals' geographies: cultures, communication and genomics, *Cultural Geographies*, 22(2), 285-295.
- Johnson, N.C, Schein RH and Winders J., 2013,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Wiley-Blackwell, Chichester.
- Kuhn, T.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apworth, A., 2015, Habit, art, and the plasticity of the subject: the ontogenetic shock of the bioart encounter, *Cultural Geographies*, 22(1), 85-102.
- Ley, D. and Samuels, M.S., 1978, *Humanistic Geography (RLE Social & Cultural Geography): Problems and Prospects*, Maaroufa Press, Chicago.
- Lorimer, H., 2008, Cultural geography: non-representational conditions and concer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
- Macpherson, H., 2009, The intercorporeal emergence of landscape: negotiating sight, blindness, and ideas of landscape in the British countrysid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1(5), 1042-1054.
- Macpherson, H., 2010, Non-Representational Approaches to Body-Landscape Relations, *Geography Compass*, 4(1), 1-13.
- Matless, D., 1998, *Landscape and Englishness*, Reaktion, London.
- Mayhew, R.J., 2011, Geography's Genealogies, in *The SAGE handbook of Geographical Knowledge*, SAGE Publications Ltd, London, 21-38.
- McCormack, D., 2012, Geography and abstraction Towards an affirmative critiqu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6), 715-734.
- McCormack, D.P., 2013, *Refrains for moving bodies: experience and experiment in affective space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Merriman, P., 2012, *Mobility, space, and culture*, Routledge, New York.
- Mitchell, D., 2003b, Dead labo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landscape-California living, California Dying, in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SAGE, London, 233-248.
- Mitchell, D., 1995, There's No Such Thing as Culture: Towards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Idea of Culture i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ew Series, 20(1), 102-116.
- Mitchell D., 2003, Cultural landscapes: just landscapes or landscapes of jus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6), 787-796.
- Phillips, R., 1997, *Mapping men and empire : a geography of adventure*, Routledge, London.

- Pile, S., 2010, Emotions and affect in recent human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5(1), 5-20.
- Sauer, C.O., 1963, *Land and Life: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Carl Ortwin Sau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Smith, N., 1990,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Basil Blackwell, Oxford.
- Spinney, J., 2015, Close encounters? Mobile methods, (post) phenomenology and affect, *Cultural Geographies*, 22(2), 231-246.
- Thrift, N., 1996, *Spatial Formations*, SAGE, London.
- Thrift, N., 2004, Performance and Performativity, in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Blackwell, Oxford, 121-136.
- Thrift, N., 2005, From born to made: technology, biology and spa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4), 463-476.
- Thrift, N., 2006, Space, *Theory, Culture & Society*, 23(2-3), 139-146.
- Thrift, N., 2009, Space: The fundamental stuff of geography, in *Key Concepts in Geography*, SAGE, London, 86-96.
- Thrift, N. and Dewsbury, J.-D., 2000, Dead geographies—and how to make them l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8(4), 411-432.
- Thrift, N.J., 2008,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International library of sociology, Routledge, London.
- Vannini, P., 2015, Non-representational ethnography: new ways of animating lifeworlds, *Cultural Geographies*, 22(2), 317-327.
- Wilson A., 1992, *The culture of nature: North American landscape from Disney to the Exxon Valdez*, Cambridge, Blackwell, Mass.
- Wilson, C. and Groth, P., 2003, *Everyday America: cultural landscape studies after J.B. Jacks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Wylie, J., 2005, A single day's walking: narrating self and landscape on the South West Coast Path,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2), 234-247.
- Wylie, J., 2006, Poststructuralist theories, critical methods and experimentation, in *Approaches to human geography*, SAGE, London, 298-310.
- Wylie, J., 2007, *Landscape*, Routledge, London.
- Wylie, J., 2012, Dwelling and displacement: Tim Robinson and the questions of landscape, *Cultural Geographies*, 19(3), 365-383.
- Zukin, S., 1991, *Landscapes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xford.
- 교신: 송원섭, BT7 1NN, 영국 벨파스트 엘름우드 에비뉴, 엘름우드 빌딩, 퀸즈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wsong01@qub.ac.uk, culturalgeo@gmail.com)
- Correspondence: Wonseob Song, BT7 1NN, Elmwood Building, Elmwood Avenue, School of Geography, Archaeology, and Palaeoecology, Queen's University at Belfast, United Kingdom (e-mail: wsong01@qub.ac.uk, cultural-geo@gmail.com)
- 최초투고일 2015. 4. 16
수정일 2015. 5. 30
최종접수일 2015. 6. 16